

주 일 낮 예 배		
인도 : 이충원 목사		1부-오전 9:00 / 2부-오전 11:00
※예배선언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	
※송 영	성가대	
※찬 송	찬송가 23장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39. 시편 95편	
기 도	1부 : 박성희 권사	2부 : 김수근 장로
헌 금	찬송가 528장 /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경봉독	롬 1:1~2	
교회소식	사회자	
찬 양	할렐루야 성가대	
설 교	부르심을 따라	이충원 목사
폐 회 송	찬송가 445장 /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축 도	이충원 목사	
※표는 일어서서		•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오후찬양예배		• 오후 2:00
• 찬 양	청년부 찬양팀	
• 성 경	하박국 3:16~19	
• 말 씀	두려움을 끌어안고 (강성찬 목사)	
• 축 도	이충원 목사	

■ 수요일예배	• 오전 11:00	■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 성 경	고전 16:10~12	■ 셀리더교육	오후 8:50
• 설 교	주의 일에 힘쓰는 자	■ 중보기도	자정 12:00 ~ 새벽2:00

■ 셀 모임 현황									
셀	리더	모인곳	참석	헌금	성경	성미	전도	합계	누적
여1	김문자	교 회	5	5,000	10	5		20	920
2	신애철	교 회	10	10,000	10	10		30	900
3	김정자	교 회	20	15,000	30	5		55	1790
4	박성희	교 회	15	15,000	10	10		35	1080
5	김용현	교 회	20	16,000	10	10		40	1005
6	김미란	교 회	20	20,000	20	15		55	1950
7	이영란	교 회	25	25,000	20			45	1750
8	성주애	교 회	5	5,000	10	5		20	555
9	박은주	교 회	20	20,000	30	15		65	1645
남1	장순산	교 회	25	25,000	20			45	2230
▶ (점수) 셀 예배 참석, 성미는 1명당 각각 5점이며, 성경읽기는 1명당 10점, 전도는 1명당 300점입니다.									
■ 9월 ~ 10월 예배 섬김이									
• 9월		안내위원:	정수나, 김문자, 김미란, 최성탁, 윤영희, 김승미						
		헌금위원:	정동배, 김문자						
• 10월		안내위원:	정수나, 김문자, 김미란, 심수만, 윤영희, 김승미						
		헌금위원:	김영선, 윤영희						
■ 우리가 돕는 선교지									
• 정월의(필리핀) • 이태주(카메룬) • 이화섭(인도네시아) • 태국인교회(이용웅)									
• 한꿈교회(탈북민) • 흥신대학교 • 세계로교회 • 생명생교회(군부대)									
• 기쁨의 교회									
■ 향기로운 예물 (농협 170040-51-012041 성은교회)									
• 심일조									
이혜진 김영일 여광연 박재균 심애철 이몽옥 김주는 김수근 김은희 김정대 김정자 최성임 김영선 윤영희 김주희 김진아 성주애 최성탁 김용현									
• 감사헌금									
홍숙의 김수근 김은희 김정대 김정자 이옥화 이종언 윤영희 전영희 여광연 최성탁 김용현									
• 건축헌금									
신애철 이몽옥 박은주 김정대 김정자 최성탁 김용현 성주애 최성임									
• 선교헌금									
최성탁 김용현 성주애 최성임 박은주 김정자 이몽옥 김정대 김정자 김주는 김주하									
• 오병이어헌금									
중보기도팀 김정대 김정자 무 명									

■ 2023년 말씀 기도 일독 셀: _____ 성명: _____	
요일 / 성경구절	말씀 기도제목
24일(주일) 다니엘 6~9장	
25일(월) 다니엘 10~12장 호세아 1장	
26일(화) 호세아 2~5장	
27일(수) 호세아 6~9장	
28일(목) 호세아 10~13장	
29일(금) 호세아 14장 요엘 1~3장	
30일(토) 아모스 1~4장	
셀 모임 공과	본문말씀 : 빌레몬서 1:8~21
(31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	
❶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몬 1:9)	
❷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몬1 :16)	
❸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몬 1:21)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언제부터 나를 나로 인식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언제부터 아셨나요? 우리는 나를 부르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알 뿐, 정작 아기는 자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커녕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나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빠르면 15개월차가 되어야 자기 인식이 조금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나를 '너'라고 불러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끊임 없이 불러주는 엄마와 아빠의 부름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것이 내 이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과 존재를 깨우친 사람은 없습니다.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첫 시작입니다.

그저 찌릿이, 생물체에 불과했던 우리는 누군가의 '부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나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가?', '그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인생을 삽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무엇이고 가장 소중한 부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바울은 로마서의 첫줄에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를 불러주는 곳이 많아서 여기 저기 불려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차원이 다른 부름을 받고는 바울은 오직 그 부름의 상을 좇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과 직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여 부른다고 우쭐해지지 않고, 낮춰 부르는 호칭에도 그닥 불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소중하기에 사람들의 부름과 명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혜입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이번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귀향과 귀성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❷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관계로 29일(금) 금요기도회는 드리지 않으며, 다음 주일(10월 1일)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❸ 11월에 필리핀선교지(정원의 선교사)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방문 일정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4셀 ▶ 다음 주 -

◆ 9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9/18~2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새로남교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